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

문제는 '왜곡된 지식'이다!

-왜곡된 신앙지식을 바로잡아 주고, 성경에 재미를 붙여 주는 흥미진진 성경탐구서

"1부 성경에 이런 인물은 없다"
"2부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다"
"3부 성경에 이런 사상은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을 바로잡아 주고,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 주는 성경탐구서!

오경준 지음/민음의 글들 206/A5/280면/9,500원

경기도 부천에 낮은교회를 개척하여 9년여 동안 목회했으며, 작은 교회들의 연합을 통한 부흥을 놓고 기도하던 중 같은 지역 개척 교회인 상동제일교회와 연합을 시도, 2002년 10월 교회 통합을 이루었다. 그 후 달인목시적을 사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강원도에서 글을 쓰고 있다. 서울신대에서 신학(B.A.), 같은 대학교 신대에서 구약학(M.Div.)을 공부했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석사(Th.M.)를 마치고 현재 연세대 대학원 신약학 박사과정(Ph.D.) 중에 있다.

오늘 속의 영원, 영원 속의 오늘

구상 지음/A5신변형/480면/양장/19,000원

개똥밭

구상 지음/A5신변형/392면/양장/17,000원

일평생 구도자로 일관한 명상시인 구상의 시·연작시 컬집

심오한 진정성, 깊은 신심, 굴곡진 인생사의 통찰이 꽃피운 시 세계를 망라한 전집 두 권. "삶의 진정성이 공적인 발언과 사적인 행동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면 이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진리, 즉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정태적인 교조(敎條)가 아니다. 구상의 일생은 진리의 모색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시들은 그 길을 따라간 발자취의 기록이기도 하다." -안선재/서강대 영미문화과 교수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대학 입학 새내기 크리스천, 어떤 책이 좋을까?

-04 학번들의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알뜰 북메뉴

크리스천 새내기를 위한 대학생활 길잡이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청년 사역 전문가들과 선배들의 유익한 조언과 실용 정보가 가득! 학원복합협의회의 역을/A5신변형/176면/3,500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직업, 비전, 선택, 문화, 고난, 용기 등 우리 시대 청년들이 고민하는 20가지 영적 화두! 이재철 지음/민음의 글들 177/A5신변형/248면/7,000원

이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신의 존재, 고통, 종교, 절대진리, 자유의지 등 현대의 젊은 세대가 제기하는 질문들..... 수잔 해퍼 백클리 지음/김종철·박진숙 옮김/민음의 글들 187/A5신변형/224면/7,000원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비합리적이다?' 루이스를 만나면 달라질걸! C. S. 루이스 지음/정경철·이종태 옮김/민음의 글들 185/A5신변형/352면/양장/12,500원

요셉의 회상

'꿈쟁이' 요셉은 고1 때 노예로 팔려, 13년간 노예였다. 성경이 지루하다고 누가 그랬어? 지유철 지음/A5신변형/240면/6,500원

요셉의 회상

성경·신학적으로 핵심을 콕 찌어 주는 예배 특강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가! 송인규 지음/민음의 글들 197/A5신변형/240면/7,800원

우리가 아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

그간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는 가르침을 성경적이라고 알고 있었다! 왜곡된 성경지식을 바로잡고,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 주는 흥미진진 성경탐구서. ※만화가 강정욱의 일러스트 수록. 오경준 지음/민음의 글들 206/A5/280면/9,000원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이탈

미술부 직원모집

저희 홍성사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감각있는 디자이너
(남자·신입·1명)를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 무료 정기구독 신청: T.333-5161(711)

홍성사 Book News

책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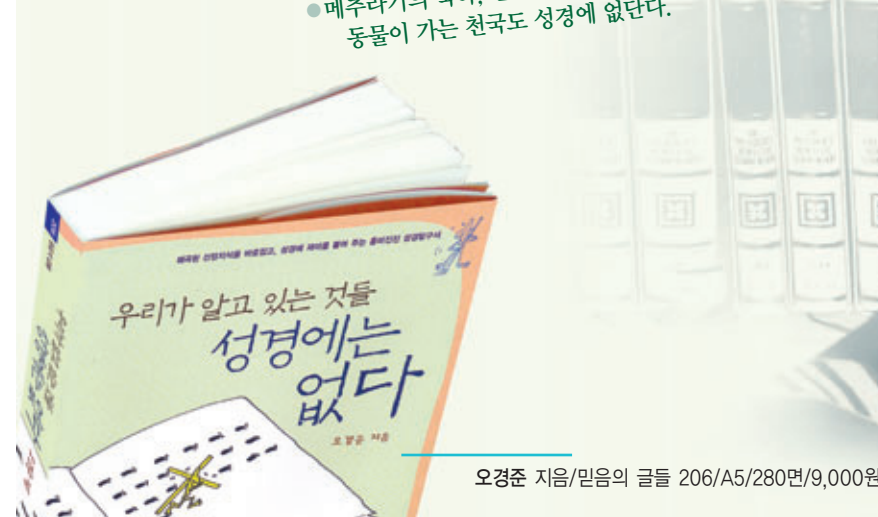
2004년 1~2월

뭐, 성경에 없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지?

● '원도양자' 라벨, '홀루한 성관' 솔로몬, 방자의 '못된' 형은 성경에 없었다.

● 매추라기의 축복, 안찰기도, 은혜 넘치던 베네딕도,

동물이 가는 천국도 성경에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장에 들어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말씀이 꼭 걸려 있었다. 그리고 정말 시작은 별 볼일 없던 나중에는 사업이 번창하리라는 염원을 담아 기도하곤 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뜻, 즉 하나님의 말씀도 욕의 말도 아닌 욕을 비난하기 위해 그의 친구가 던진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구절을 담은 액자가 어느 댁에 걸었다.

또 최근까지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가 '세 명' 이고, 예수님 '오른 편' 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교육해 왔다. 하지만 성경은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어느 편에 매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사람,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이라도 사실 성경 속 내용을 모두 바르게 이해하리라 쉽지 않다. 특히 성경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에만 그 의미를 두어 읽다 보면, 본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는 이처럼 성경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절구절만 읽고 해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해들을 성경에 충실한 신학적 상상으로 읽고 재미있게 풀어 주고 있다.

하지만 단지 성경이 말하는 본뜻을 해석하고 잘못된 신앙지식을 바로잡는 데서 끝난다면 기존의 성경 해석서들과 무는 차이가 있을까? 이 책의 참맛은 신앙적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동시에 그동안 곁에 두고도 자신하여 읽기가 쉽지 않았던 성경책을 다시금 펼쳐 읽도록 하는 데 있다.

▶차례: 제1부 성경에 이런 인물은 없다
역술한 예서는 없다 | 현모양색 라벨은 없다 | 마음씨 좋은 만행 부두맨은 없다 | 하나님의 신자자 발발은 없다 | 훌륭한 성관 솔로몬은 없다 | 손 안 대고 코끝에 브라운은 없다 | 탕자와 못된 형은 없다제2부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다
매추라기의 축복은 없다 | 솔로몬은 지혜로운 머리틀 구한 적이 없다 | 안찰기도는 없다 | 원수의 목전에서 수여되는 상화는 없다 | 49세 예배는 없다 | 짝 찾기 가르침은 없다 | 은혜 넘치던 베네딕도 연못은 없다제3부 성경에 이런 사상은 없다
고요한 명상적 평화는 없다 | 미산에는 절대 음당이 없다 | 동물이 가는 천국은 없다 | 예수님의 세례,▶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 신학 ①, ②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힌 왜곡된 신학·신앙의식을 바로 잡아 주는 대중적 신학서.
송인규 지음 | 민음의 글들 183-184 | A5신변형 | 각권 236면 | 각권 8,500원▶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성경·신학적으로 핵심을 콕 찌어 주는 예배 특강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가! 송인규 지음 | 민음의 글들 197 | A5신변형 | 240면 | 7,800원

우리가 아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

그간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는 가르침을 성경적이라고 알고 있었다! 왜곡된 성경지식을 바로잡고,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 주는 흥미진진 성경탐구서. ※만화가 강정욱의 일러스트 수록. 오경준 지음 | 민음의 글들 206 | A5 | 280면 | 9,000원

말할 이유는 없다 | 마리아 승배는 없다 | 동생애를 응호하는 말씀은 없다 |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없다 | 안식일 논쟁은 없다

▶저자인터뷰

“말씀의 사람들’을 퍼뜨리는 데 보람 되기를.....”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책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나요?

목회를 하면서 외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들은 이런 상황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발견한 오해의 주제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고 모아 오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쓰거나 집권 방식에서, 기존의 성경해설서나 강해서와는 굉장히 차별되는 느낌이 듭니다.

성서신학적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용도 어렵고 무엇보다 별로 이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실제 목회현장에서 그런 딜레마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벽을 한번 넘어 보고 싶었습니다. 목회자가 신학수업에서 얻는 깨달음과 은혜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그려면서도 깊이 있는 차원까지 성경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다행히 제 글을 읽어 보신 여러 분들이 “참 재미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어떤 나라보다 성경공부를 강조하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성도들이 상당한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일단 ‘그때 거기에서’ 보다 ‘지금 여기에서’가 먼저 강조되는 성경교육 때문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무리한 ‘적용 중심의 성경교육’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 자체를 주목하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말씀의 참 의미를 꼼꼼히 파헤치는 작업 없이, 현실의 적용과 일단만 강조하다 보니 성경본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오해들은 늘 어가고 동시에 말씀과 동행했던 무리한

적용들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성경의 한 본문을 공부하면 반드시 적용과 교훈을 얻어서 곧바로 극적인 삶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말씀 자체의 힘이 결국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성경의 실제 내용 자체에 먼저 집중하는 성경교육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더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일단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책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거룩하다고 하니가 읽어 보지도 않고 나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진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이 왜 진리인지를, 사도행전 17장 11절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의심도 하면서 직접 읽어 체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인간의 글과 사상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는 인간의 이성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으로 이르게 만드는 신비한 성경의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당 없이 일반 서적처럼 친숙하고 이성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도 가웃거리고 질문도 던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수천 년 된 성경이라는 고서적이 매우 재미있고 흥미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찬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흥미 속에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발바닥에 배 깔고 읽던 자신이 어느새 성경책에 눈물을 적시며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독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데에 이 책이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분들의 관심사가 다른 무엇보다 성경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성경 이야기가 최고의 주제가 되는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이 책이 그런 날들을 한 걸음 앞당기는 데에 보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까지도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성경말씀

지면안내

- 2 새책&기획
한국 그리스도인의
오래된 기도 오남용 파헤친
정요석 목사
- 3 기획&근간안내
‘설교의 황무지’를
개척하다
- 4 기획광고
새내기 대학생 위한 북메뉴

온고지신 溫故知新

성경전과-구약
S. 헤이스팅스 글/ E. 토마스 그림/ 최현준 옮김/184쪽/양장/원라/24,000원
“주일학교 교사들의 필수 참고서”
●순복음신문
●독자:10년간 수집한 600여 점의 사진과 그림자료성경전과-신약
S. 헤이스팅스 글/ E. 토마스 그림/ 최현준 옮김/152쪽/양장/원라/19,000원
“주일학교 사경과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책” 목회와 신학
●독자:10년간 수집한 600여 점의 사진과 그림자료성경, 흐름을 잡아라
존 팀머 지음/박해영·이석열 옮김/424면/12,000원
“중장년 위한 성경연구서 ‘길라잡이’”
-국민일보
●특징:369편을 하나의 유기적 흐름으로 보여주는 성경연구서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관심을 보이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진행·정리 ●이현주
(편집부 대리, lhy@hsbooks.com)

기도생활, 좀 제대로 할 순 없을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

정요석 지음
기도에 대해 오래된 오해와 미신, 기도의 오남용 문제를 성경을 바탕으로 쉽게, 그러나 핵심을 찌러 주는 '기도 처방전!'
민음의 글들 205 | A5신변형 | 7,500원

“기독교와 불교의 기도가 같다고요?”
“기도에도 ‘지성이면 감천’이 통하나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을 수 있다고요?”
“응답받는 기도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영험한 기도자가 따로 있나요?”

홍성사

